

심정을 통하는 기도

(삼상1:9-16)

서론: 기도 속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한나가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된 부분들을 붙잡음으로 분명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1. 기도 응답 이전에

- 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조급해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 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여유를 가지고 바르게 하며,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 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2.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 가.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것들과 기준에 끌려가지 않고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 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 다. 재앙의 시대에 다른 것 의지하도록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결론: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나실인의 응답을 예배해 놓고 한나에게 응답의 문을 막으셨습니다. 한나에게 그 괴로움의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안 될 때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그리스도 말씀 운동, 그리스도 회복 운동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